

# 민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6월께 나온다

## 민주, 광주 동구 지역위원장 선출 보류

### 조강특위, 후보 5명 나선 서구 읍은 경선 전망

#### 당 정치혁신위, 개혁방안 발표

#### 당직선출·공직후보 추천 1년 전 규칙 확정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주목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안이 오는 6월께 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아 정당 공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통합 정치혁신위원회는(이하 혁신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당 통합 혁신 방안' 발표 토론회에서 당직 선출과 공직 후보 추천 모두 1년 전에 규칙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선거인단은 당원 선거인단(대의원, 관리당원, 일반당원) 50%, 국민 선거인단(민주서포터즈, 일반 국민)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 선거인단은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원 선거인단 경선 결과는 1표당 가차 부여 방식과 비율 부여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 계산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심위원회는 외부인사 절반이 포함된, 30인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광역의원 후보자는 2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공천 심사는 1차로 도덕성 및 정체성을, 2차에는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기로 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의원도, 의정활동능력,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3배수 추천의 경우,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광역의원 경선은 권리당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안과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능력있고 신뢰받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개혁하고 변화하는 미래정당 등 3대

혁신 목표를 내놓았다.

혁신위는 또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당헌·당규 변경을 최소화한 전당대회 1년 전에 이뤄지도록 했다. 당의 핵심기반으로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권리로 대폭 강화시킬 것도 주문했다.

당의 온라인 공간(플랫폼)에서 일정한 활동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할 경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민주서포터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 정상화 ▲온라인 소통 본부 설치 ▲민주미디어 센터 설치 ▲정치대체 설립(당원 및 민주시민 교육) ▲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혁신위의 초안은 정당 당 혁신의 최대 과제로 꼽혔던 계파정적 청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본격 가동에 들어간 당 혁신위가 두 달에 가까운 논의 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치고는 초라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핵심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논조도 받고 있다.

이날 공개한 혁신안은 앞으로 일주일여 동안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주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통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광주 동구 지역위원장 선출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무려 5명의 후보가 등록한 광주 서구 읍은 조강특위 심사 등을 거쳐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은 "광주 동구 지역위원장 선정과 관련, 조강특위는 당간간 선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동구 지역위원장에는 성형외과 의사인 오형근씨가 단독으로 응모했다.

이는 무소속으로 머무르고 있는 박주선 의원을 고려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병완 시장위원장은 문화상

비대위원장에 박 의원의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지구당 위원장 선출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광주 서구 읍 지역위원장은 아직 조강특위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지역 실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는 점에서 조강특위에서 특정인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위원회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단수 후보로 선정되면서 지역위원장을 그대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네탓공방" 격화...정부조직법 장기대치

### 與 '국가비상' 적극 부각 野 '대통령 결단' 촉구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상호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당은 13일에도 정부조직 개편협상의 막판 쟁점인 방송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SO)을 포함한 모든 방송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 담보방

안을 마련하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통합당은 SO를 방송통신위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직·간접 접촉을 통해 막판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해 예정이지만 전격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미래부에 대해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부적격론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오히려 꼬여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정치권은 상호 비방전에 열을 올리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임을 적극 부각하면서 조속한 정부조직 개편 압박에 나섰다. 민

주당은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화·타협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정치적 기교를 부리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점을 거론,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화상 민주당 통합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주최 제49회 한국보도사진전 '사람을 보다, 시대를 읽다'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자가 던진 덕담에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오른쪽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연합뉴스

## 새누리 '투톱' 충돌...정부조직법 '자중지란'

(황우여-이한구)

### 정몽준 "지도부 총사퇴 각오로 정치위기 해소해야"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던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특히 당을 이끄는 황우여 대표와 협상의 전권을 전 이한구 원내대표간 내부 균열로 갈팡질팡하면서 국적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와중에 벌어지는 여야 기싸움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일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겠다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송 제기도 만지작거리는데 그야말로 '침입가경'이다.

불과 1년 전 물리적 충돌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협상이 진척이 없자 황 대표와 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한 장치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 대표가 뒷집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협상에 물꼬를 트려고 양측이 나섰지만, 이는 '1일 천하'로 끝났다.

협상을 총괄한 이 원내대표가 양측의 협상 내용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더는 원내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설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 측이 서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전 대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13일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

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를 초래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조직 문제를 일단락 짓고 여야가 마음을 모아 안보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정치위기를 방지해 안보위기를 가중시킬지, 책임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답변

### 추경편성 '긍정'·복지증세 '부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 검증에 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다른 경제부총리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조정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경 편성과 급리인하 등 경기침체 대

응책을 따져 물었다.

현 내정자가 KDI 원장을 연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정책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본인의 병역면제 및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 장남의 이종국적,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및 지각 납부,

저축은행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사례 의혹, 부친의 친일경력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답변에 나선 현 내정자는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 "재정·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에 대해서는 "세입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지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최고용도로 적합
- 비이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사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병면, 정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입,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업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 매대가 7억9천 원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상가매매◆

- 신용동 협단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대가 8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4억 원 이동통신점 임업예정
- 신용동 협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각예정

분양

- 용두동 협단지구 12차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544만원 매대가 2억9천만 원
- 용두동 협단지구 12차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반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협단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매상구역)
- 신용동협단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0만원(대건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매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룸37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 87억9천만
- 월전동 홈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86억9천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간혹, 분당대행, 시정, 상담)

###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1인1물건 추천  
▶주1회,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액"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